

### 8월의 기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7년 9월 20일 일본 순복음오야마교회에서 개최되는 축복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원소선, 이금란, 정경자, 최인철,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함석숙, Maxwell Arhin, Michelle McQueen, Simon S., Utomi Paul Nathan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믿고 맡기는 신앙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다시 말해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삶을 살아보니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먹고 자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한만큼 하나님은 행복과 성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죽는 그 날까지 다 예비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걸머지고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와 고난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양이 되어 믿고 순종만 하면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되돌아보는 2017년 상반기 DCEM 해외성회

2017년 상반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2017년의 시작은 아시아의 태국이었다.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주관으로 진행된 '태국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에서 2월 8일과 9일 이틀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저녁 성회를 인도하며 성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선물했다. 이는 1996년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태국 성회가 열린 지 약 20년 만이었다.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열린 이번 성회에 태국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 교회성장과 새로운 부흥의 효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기도로 준비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변 아시아국가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 레바논과 파키스탄 등에서도 참석해 성회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일본의 공휴일(춘분의 날)인 지난 3월 20일, 제자인 우창희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야마토교회

(에비나시 소재)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회는 스승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주창한 '일본 1천만 구령'의 사명을 위해 우창희 목사가 야마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축복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를 주최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순복음야마토교회에 도착해 성도들과 어린 화동의 환영을 받았다. 순복음야마토교회 우창희 목사는 “이번 성회가 순복음야마토교회에는 새로운 도전이 됐다. 지역 성서화를 통해 '일본 1천만 구령' 전진기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야마토 지역에 뒤이어,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일본총회와 순복음동경교회가 공동 주최한 '지저스 페스티벌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 기념 성회'가 5월 28~30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동경 신주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의 전초기지인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린 이번 성회에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순복음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일본 선교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성령 대추제의 장이었다.

일본에 이어 조용기 목사는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엠파워드21 아시아총회를 겸한 싱가포르성회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DCEM 주관으로 싱가포르 엑스포 제2홀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은 물론 미국과 아프리카 등지의 목회자들과 성도, 특히 청년들이 참석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복음사역은 쉬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는 장면을 감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창조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병남 집사님이 제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이 분은 교통사고로 등뼈에 금이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금이 간 뼈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서 수술을 한다 해도 하반신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이 일도 못하니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5월 28일 주일 예배 신유 기도시간에 “등뼈가 아픈 사람이 나왔다.”라는 선포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마음속에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보기도를 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많이 바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수기도는 생각지 못하고 중보기도만 부탁했는데, 제가 편지를 읽고 비서를 시켜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6월 15일에 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나흘 후에 검사를 했더니 등뼈가 감쪽같이 붙어있었습니다. 담당의사가 고개를 가우뿍거리면서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태산 같은 문제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1.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만물이 만들어졌지 물질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꿈을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

말의 위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5절)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쁜 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장 13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멘’도 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긍정도 할 수 있고 부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성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요한복음 4장 46절~4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요한복음 4장 50절~51절)

이 아들이 죽었다고 받아들였으면 죽었을 것인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내려가니 그 믿음대로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장 17절)

2. 말씀은 4차원의 그릇

말씀은 4차원의 그릇입니다. 4차원은 영적 차원이므로, 물질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영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장 4절~5절) 육신적인 사람, 유물주의자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 다 영이 죽었으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유물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4차원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야 하늘 나라 일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요한복음 3장 6절~7절)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 꿈, 믿음, 우리의 신앙고백은 영적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 믿음 그리고 신앙고백을 통해서 성령과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 영 그 자체이십니다. 우

리가슴에 가지고 있는 4차원은 생각이 4차원이요, 꿈이 4차원이요, 신앙이 4차원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4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 4차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와 기적을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말씀을 통한 변화와 창조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려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4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과,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소통하고 변화와 창조의 사역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성령을 모시고 나가면 믿음의 기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언 18장 20절~21절)

우리가 말로 언제든지 시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위치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밝은 빛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말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자녀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가정예배를 볼 때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콩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



오는 8월 29~30일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하여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순복음동성교회 담임목사)이 주관하고 홍콩교회 연합이 주최하여 ‘홍콩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홍콩성회에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주강사로 초청 되었고 여기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가 함께하여 홍콩 AWE(Asia World Expo)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홍콩성회 대회장인 류진성 목사(월랑금광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6월 13일 CCMM빌딩 11층에서 성회 주강사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만나 환담했다.

홍콩 하나님의성회 월랑금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류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만나 오래 전 격려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홍콩 성회를 준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류 목사에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다”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콩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홍콩대성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류진성 목사는 1992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국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한다. 류 목사에게 한국 방문은 그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영적 체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월랑금광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한국 방문이후 류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교회 성장의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 월랑금광교회는 네팔, 싱가포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35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유럽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오야마교회 축복 성회

오야마 시(일본어: 小山市)는 일본 도치기현의 남부에 있는 시이다. 인구는 20만명 미만이지만 조난 지구, 우쓰쿠시야오카 지구 등의 개발 중인 뉴타운 지역도 있어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이다. 도치기현 남부의 중심 도시인 것과 동시에 도호쿠신칸센, 우쓰노미야 선, 료모 선, 미토 선이 통해 도쿄 방면에서 료모, 유키로의 관문이 되고 있다. 주변의 세 시와 함께 고야마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심 도시이다.

오는 9월 20일 순복음오야마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축복성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순복음오야마교회는 2002년에 DCEM을 후원하기 위한 “DCEM 오야마 후원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오야마 후원회 창립예배는 일본 농촌의 작은 도시인 오야마시를 일깨우는 세계선교의 작은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강은택 담임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세계선교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전 교우가



회원으로 가입해 세계선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순복음오야마교회는 지난 1994년 현재 담임 목사인 강은택 목사에 의해 개척됐으며 차분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농촌교회로 지목 받고 있다. 강은택 목사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조 목사의 가르침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믿음의 자세를 항상 본받으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강 목사는 일본목회를 하다 보면 조용기 목사의 제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때



중국본토에서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류진성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이번 홍콩 방문을 통해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홍콩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무속신앙이 강한 홍콩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종교도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불교와 기독교 가톨릭 도교 모슬렘 유교 등 6개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있다. 전체 인구비율로 기독교인의 비율은 4.6퍼센트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홍콩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홍콩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가 많으며 적극적인 순복음 신앙과 사랑이라면 일본 복음화는 어려울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강 목사는 여성이기에 가지는 특유의 감수성과 섬세함으로 성도들의 더 섬세한 부분까지 섬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여자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복음오야마교회 축복성회에는 순복음강남교회의 두나미스 목찬양팀이 함께하여 공연을 통해 은혜를 나눌 예정이다.